

KazNKS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4.12.10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6 회 한국학주간 특집

2024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제 6 회 한국학주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립사범대, 숄레이만 데미렐대, 언어대, 외국어교육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코르키트 아타대, 타라즈대, 동카자흐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 타슈켄트 부천대, 바쿠 국립대, 일리아 국립대 등 6 개국 10 개 도시 19 개 대학에서 학생, 교원 및 관계자 13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pp.2-3)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관련기사 p.4)	CIS 대학(원)생 학술대회 (관련기사 p.5)	한국학특강시리즈 (관련기사 p.6)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관련기사 p.7)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관련기사 p.8)
제 1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11 월 29 일-30 일)	제 9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 (11 월 29 일)	박내천 총영사 노영남 LG 법인장 김홍환 교육원장 우수한 부총장 외	카자흐스탄 교육부 주관 2024 카자흐스 탄 한국학올림피아 드 (5 월 2 일-3 일)	578 돌 한글날 및 코 리아코너 개관 기념 한국학포럼 (10 월 31 일)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Muratbayev 200,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제 6 회 한국학주간

11 월 29 일부터 30 일까지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는 중앙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 6 회 한국학주간을 개최하였다. 한국학주간은 한국학을 학습하는 학문후속세대들의 교류와 지식, 경험 확장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 한국학주간에는 연사 초청 특강뿐만 아니라, 제 1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9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본교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내 대학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립사범대, 술레이만 데미렐대, 언어대, 외국어교육대, 나자르바예프대, 유라시아 국립대, 코르키트 아타대, 둘라트 타라즈대, 동카자흐대 학생들과 교원이 참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부친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국립대, 조지아의 일리아 국립대 등 약 130 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박내천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 우수한 중앙대학교 부총장, 노영남 LG 전자 러시아 CIS 법인장, 이소명 KF 모스크바사무소장이 축하의 말을 전하였으며, 향후 한국학 교육과 관련한 이와 같은 행사에 많은 지원을 약속하였다. 개회식 직후 박내천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는 한국의 역사 및 남북한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어 우수한 중앙대 부총장이 한국 경제와 문류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3 면에서 계속)



제 6 회 한국학주간

(2 면에서 계속)

29일 오후에 진행된 제 9 회 대학생 한국학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발표를 보여주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민간신앙 연구, 한국어와 카자흐어 언어비교 연구, 민족 문제 연구 등 심도 있는 학부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제 1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29일과 30일 양일 간 진행되었으며, 첫날은 한국의 문화, 역사, 지리, 경제, 정치를 포함하는 필기시험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두 번째 날에는 참가한 학생들이 “인생, 미래, 약속”이라는 임의로 선택된 주제에 대해 3분 간의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말하기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으로는 김홍환 알마티 한국교육원장, 김정훈 KOTRA 알마티무역관장, 윤용희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팀장, 이재욱 BLJ Law & Tax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학생들의 말하기 이후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 층 수준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필기시험과 말하기 평가의 점수를 합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1등 1명, 2등 2명, 총동문화 특별상 1명, 3등 3명과 장려상 4명의 학생들이 선발된다.

이번 올림피아드에서는 세계언어대 주누스 아시아가 1등 겸 중앙대 총장상을 수상했고, 2등은 동 대학 카이르베코바 아루잔과 코르크트 아타대 다스탄키지 아케르케가, 총동문화 특별상은 언어대 스마일 마르하바트가 차지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국학 학습을 독려하는 참가증명서가 수여되었다.

2024년 제 6 회 한국학주간은 30일 폐회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행사 자료는 아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사진다운로드 <https://disk.yandex.ru/d/bPZMMsITdPyGKA>
 유튜브채널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2Uu8-eHQwnO-IEsXXvIT1F1YwHEwxuBJ&si=Vp25yCrTj7tM9XJ>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eel/DDUpUO3iN3q/?igsh=aWFqdmpvZ3R3aGt1>



제 1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중앙대학교는 제 6 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29일(금), 30일(토) 이틀에 걸쳐 제 1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경시대회는 알마티, 아스타나, 크질오르다, 타라즈, 오스케멘, 비슈케크, 타슈켄트, 바쿠, 트빌리시 등 5 개국 9 개 도시에서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립사범대, 솔레이만 데미렐대, 언어대, 외국어교육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코르키트 아타대, 타라즈 주립대, 동카자흐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 타슈켄트 부천대,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바쿠 국립대, 일리아 국립대 등 17 개 대학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명실공히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 경시대회이다.

29 일에는 한국어, 문학,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30 일에는 말하기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말하기에서 “인생, 약속, 미래” 중 임의로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뽑냈다. 김홍환 원장(알마티 한국교육원), 김정훈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윤용희 팀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이재욱 변호사(BLJ 법무법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1 등 1 명, 2 등 2 명, 3 등 3 명, 장려상 4 명을 선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총동문회에서 특별상 1 명을 선발하여 3 등을 시상하였다.

올림피아드에서 1 등 겸 중앙대 총장상을 차지한 주누스 아시아(카자흐 세계언어대 4 학년) 양에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에서 준비한 올림피아드 1 등 상금과 함께 중앙대학교에서 준비한 총장상 상장, 상품, 소정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피아드 1 등 겸 중앙대 총장상(1 명)
 - 주누스 아시아(카자흐 세계언어대)
2. 올림피아드 2 등(2 명)
 - 다스탄키지 아케르케(코르키트 아타대)
 - 카이르베코바 아루잔(카자흐 세계언어대)
3. 올림피아드 3 등(4 명)
 - 스마일 마르하바트(언어대)
 - 작실리크 파리자(유라시아 국립대)
 - 미를란베키지 알리나(중앙아시아 한국대)
 - 제이날로바 나르민(바쿠 국립대)
4. 올림피아드 장려상(4 명)
 - 카디르쿨로바 딜누라(나자르바예프대)
 - 사맛키지 아루잔(카자흐 세계언어대)
 - 아만가지나 잔보타(동카자흐대)
 - 자이치바예바 아세마(키르기스 한국대)



제 9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24년 11월 29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제 6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제 9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기반강화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후원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립사범대, 솔레이만 데미렐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코르크트 아타대, 타라즈 주립대, 동카자흐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키르기스스탄), 바쿠 국립대(아제르바이잔), 일리아 국립대(조지아) 등 4개국 8개도시 13개 대학에서 22개팀 32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1. 주누스 아시아, 이스칼리예바 알리야, 리스쿨로바 빌로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학년).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러시아어 번역에 나타난 상징성과 은유
2. 쿠안 가우하르 (카자흐 국립대 석사 1학년). 외교 뉴스 텍스트 번역의 특수성: 문화적 뉘앙스와 실용적 전략
3. 아우에스 사말 (타라즈 주립대 석사 1학년). 고등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특징
4. 카나피야 쿤디즈, 사마르한 아셈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무속의식의 기호학과 한민족의 상징
5. 이 안드레이 (중앙아시아 한국대 3학년).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간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환학생시스템
6. 아흐메토바 라비가 (나자르바예프대 3학년). 북한 무력도발의 원인 분석 - 2015년 목침지뢰사건을 중심으로
7. 아우오바 자리나 (카자흐 국립사범대 4학년).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비교 분석
8. 아바소바 마리얌 (바쿠 국립대 3학년).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속담의 유사점과 차이점
9. 테네이시빌리 루수단 (일리아 국립대 3학년). 유라시아에서 한국 소프트웨어의 영향력
10. 아이트자노프 루슬란, 구마르 아만, 무신 누르무하메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한국 뷰티 트렌드와 글로벌 뷰티 산업에 미치는 영향
11. 아나르베크 메디나, 유수포바 자네르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학년). 문화와 언어: 카자흐스탄의 문화 공간에 한국어의 통합
12. 바이무한 다나, 지엔바예바 알티나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돌라트 이사베코프의 <가우하르 타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카자흐문학과 한국문학의 여성상 비교
13. 작실리크 누르자나트 (카자흐 국립대 석사 1학년). 한국의 인구위기 원인과 현황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4. 세르갈리 자지라 (코르크트 아타대 4학년). 조선 시대의 미술
15. 강 아델리나, 파노바 엘리자베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칸다족과 고려인: 정부 지원이라는 프리즘을 통한 사회 통합
16. 주마바예바 누라임 (중앙아시아 한국대 3학년).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그 원인
17. 알림베토바 말리카 (유라시아 국립대 3학년). 한국 속담의 의미: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 속담
18. 바자르베크 한자다 (솔레이만 데미렐대 4학년). 한국과 카자흐의 돌잔치
19. 바라타시빌리 마리야미 (일리아 국립대 4학년). 경제 자산으로서의 문화유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전통 예술 형식의 역할
20. 아이도소바 아말 (동카자흐대 4학년). 민족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
21. 카이르베코바 아루잔, 변 야나, 마루포바 아지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러시아어 번역
22. 사맛키지 아루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한국어에서 러시아어, 카자흐어로의 교육 번역 사례를 활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의 동등성



한국학특강시리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8회의 한국학특강시리즈를 개최하였다.

8월에는 2024 KF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해외연수단에 교내 인사가 특강을 하였고, 11월과 12월에는 제6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교외 인사를 초청하여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국학특강시리즈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주제의 특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학특강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유튜브채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2Uu8-eHQwnO1r3QlCsN_MKkxYekSTDXh&si=RFFGwXg22qCNIVYF

1. 장호중, 오상호(카자흐 세계언어대), “중양아시아의 한국학”. 8월 27일(화) 카자흐 세계언어대 1관 108호
2. 오상호, 장호중(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의 경제 한류”. 8월 27일(화) 카자흐 세계언어대 1관 108호
3. 김상철(한국외국어대 교수), “멀티미디어시대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형태와 방법론”. 10월 21일(월) 카자흐 세계언어대 1관 108호
4. 노영남(LG 전자 러시아 CIS 법인장), “OPTIMISM & INSPIRATION AS BUSINESS & SOCIAL DRIVE”. 11월 28일(목) 카자흐 세계언어대 본관 Red Hall
5. 박내천(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 “1) 한국의 역사와 발전, 2) 남북 관계 및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11월 29일(금) 카자흐 세계언어대 본관 Red Hall
6. 우수한(중앙대 부총장), “한국 경제와 물류”. 11월 29일(금) 카자흐 세계언어대 본관 Red Hall
7. 김홍환(알마티 한국교육원장), “19-20세기 국제정세와 고려인의 탄생”. 12월 2일(월) 카자흐 세계언어대 1관 108호
8. 전병규(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팀장),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기”. 12월 3일(화) 카자흐 세계언어대 1관 108호



2024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2024년 5월 2일과 3일, 이를 동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 올림피아드가 진행되었다. 이번 올림피아드는 카자흐스탄 교육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카자흐스탄 소재 동양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공식적인 명칭은 카자흐스탄 대학생 외국어 올림피아드(Kazakhstan Republican Student Olympiad in Foreign Languages)로, 한국어를 비롯한 튀르키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는 동양학은 물론,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등 언어 부문의 대학생 전공자 500명 내외가 참가하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언어경시대회이다.

올해의 경우, 동양학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동 대학 동양학부 학장의 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카자흐스탄 각 지역 동양학 전공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였다. 동양학 중에서 한국학 전공의 경우 어문학, 통번역학, 인문사회과학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총 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평가 방법도 눈길을 끌었다. 어문학의 경우 한국어 문법론과 의사소통론과 관련한 작문, 통번역 부문의 경우 한국어 뉴스를 들은 후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인문사회과학 부문은 한국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문항을 푸는 테스트형 과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및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 차이를 물어보는 작문 문항이 출제되었다.

두 번째 날인 5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각 전공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심사를 위해 알마티 소재 지상사 임직원들과 타 대학 교수진이 투입되어 공정한 심사를 이어갔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카자흐스탄 문화’, ‘카자흐스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전망’ 등 다소 어려운 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나, 모든 학생들이 큰 문제없이 한국어로 발표를 마쳤다.

이 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채세원 부장(CU Central Asia)과 장원기 교수(카자흐 국립대), 김요셉 부법인장(신한은행)은 심도 있는 주제를 한국어로 유창하게 발표하는 모습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차세대 한국학을 배우는 인재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월 3일 오후 2시부터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대강당에서 모든 심사를 종합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시상은 각 부문별 1등 1명, 2등 1명, 3등 1명, 장려상 2명으로 선정했으며,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참가증명서를 제공하여 내년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동양학 올림피아드는 개최 장소 순차 원칙에 따라 카자흐국립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에 따라 더욱 향상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2Uu8-eHQwnNXFkxThqYnzWt9r-F-2Zxs&si=rKVtvuewYfXjyT>



578 돌 한글날 및 코리아코너 개관 기념

2024년 10월 31일,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공식적인 ‘코리아코너(Korea Corner)’의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코리아코너는 주말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신청을 통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번 개관식은 578 돌 한글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박내천 주말마다 대한민국 총영사, 김홍환 알마티 한국교육원장, 강기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부법인장 등 외빈과 다나 쿠난바예바 세계언어대 전략혁신부총장, 엘미라 카가즈바예바 세계언어대 동양학부 학장, 김 울리야나 코리아코너 관장이 참여하여 개관을 공표하는 테이프커팅식부터 시작하였다.

내외빈들은 세계언어대 본관 8층에 위치한 코리아코너를 둘러보고, 박내천 총영사와 다나 쿠난바예바 부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김 울리야나 코리아 코너 관장은 신설된 코리아 코너 공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간은 총 6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학 센터를 포함하여 2개의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 라운지를 갖추고 있다.

김 울리야나 관장은 향후 이 코리아 코너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훌륭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언어대 재학생들이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관련 문화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전했다.

개관식 행사 이후에는 세계언어대 학생들을 위한 각 기관별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신한은행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학 총동문회 그리고 한국학 센터 자체적인 장학금도 전달하였다. 그 외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우수자, 10월 중에 진행된 한국어 시낭송대회 및 한국 문화 영상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도 병행되었다. 또한 코리아 코너 다른 강의실에서는 재학생들의 김밥 만들기 대회가 진행되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개관한 코리아 코너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학을 학습하는 차세대 청년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2Uu8-eHOwnPsTJHf3A3wmWN114mAuev4&si=tOweGSprhXh1ixg>

